

‘3차 유행 한달째’ 광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일파만파’

동시다발적 확산에 지역사회 안팎 전파경로 다양해
‘감염원 미상’ 환자 26명...무증상 감염 비율도 5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광주에서 1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452명으로 늘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이다. 이들은 443-452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443번 환자는 집단감염이 잇따른 성림침례교회와 연관성이 있다. 444번 환자는 천안 171번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환자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에서 확진으로 판명돼 추가 접촉자는 없다.

447-448-452번 환자는 북구 전통시장 내 밥집 관련 확진자(420번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고 있다.

446-449번 환자는 새로운 집단감염원으로 떠오른 ‘석정사우나’ 관련 확진사례다. 450-451번 환자는 주요 감염원인 동광주탁구클럽과 관련성이 확인돼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인 445번 환자는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날 확진자 10명 중 6명은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 추가

접촉자·동선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3차 유행’ 기간 중 확진자는 236명이었다. 이 중 해외입국자 14명을 뺀 222명이 지역사회 감염자다.

같은 기간 주요 집단감염원별 확진자는 8·15 서울도심 집회 관련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 직접 참가자는 22명이었으며, 집회 참가자가 예배를 본 성림침례교회에서만 5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또다른 교회와 가족에 의한 전파 등도 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23명 ▲시장 밥집(침단 소재회사 포함) 19명 ▲동광주탁구클럽 17명 ▲청소용역업체 7명 ▲중흥기원 7명 ▲석정사우나 3명 등이었다.

이 밖에도 학습지 업체, 타지역(서울·인천·용인·의정부·천안·대전 등) 확진자와 접촉 등을 통해 감염이 소규모 단위별 확산이 잇따랐다.

‘3차 유행’ 확진자 중 26명은 여전히 정확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원 미상’ 환자다.

‘감염원 미상’ 관련 확진자들은 방역망 내에서 발견·관리되지 않았던 만큼,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 우려가 높다.



광주 북구청과 북구보건소 공무원들이 8일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 경매장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지난 3일 이 도매시장을 다녀간 식당 주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육이 3차 유행 기간 중 확진자 236명 중 129명이 무증상 감염이다. 비율로 따지면 54.6%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 알 수 없고 어디까지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현실화됐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격리 병상으로 옮겨 치료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행정력을 모아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는 10일 정오 명령 만료시점을 재연장할 지 검토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담보’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 공방전



군공항 이전이 담보상태에 머물면서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도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광주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전남도의원이 민간공항의

시의원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도의원 “조건없는 이전” 맞붙

조건없는 이전을 촉구하며 맞붙을 놓은 형국이다. 무안국제공항 소재지 무안 출신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8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민간공항 이전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조건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소재인 광주 광산구 출신 이정환 광주시의회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광주민간공항을 내

년 말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 성격이 짙다.

나 의원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확정,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가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통합을 없던 일로 하거나 광주 군 공항 이전 시까지 미루겠다고 주장한다면 추후 감당해야 할 비판과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군 공항 이전 추진으로 갈등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오래전 결론 난 민간공항 이전 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양시·도민 간 감정싸움만 부추길 뿐이다”면서 “정치·정략적인 의도로 소모적 논란을 야기한

다면 광주 군 공항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감염이 남을 위험만 커지게 될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이정환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담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간공항만 이전한다면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확정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시·도간 공항문제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이용섭광주시장과 김영록전남지사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 의원간 발언에서도 드러났다”면서 “의원간 공방전이 서로간에 상처만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건강과 웰빙의 대표농식!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